

광주 서구, 붕괴 클럽 부실 감독 도마위

복층 불법 증축·과거 안전사고 뒤늦게 알아

조례 상 안전규정 준수 여부 감독 부실 논란

변칙 영업 행정처분에도 '특혜성' 조례 제정

지난 27일 실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는 등 27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허용된 복층 면적 108㎡보다 77㎡가량 불법으로 증축했으며, 붕괴물도 이 중 일부인 철골·복재 구조 상판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서구는 이 같은 사실을 사고 직후 건축대상 열람과 현장 실측조사를 통해 뒤늦게 알았으며, 불법증축 경위도 수사기관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동감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17년 12월께 해당 클럽 내 복층 구조물 46㎡가량이 철거된 뒤 재가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수 사상자가 나온 원인으로 클럽이 자치구 조례에 명시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도 꼽히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이 클럽은 서구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시설물 안전 규정으로 객석 면적 1㎡당 손님을 1명 입장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클럽엔 손님 350~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클럽은 2층·복층 연면적 504.09㎡ 규모다. 부대시설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객석 면적은 더 좁을 것으로 보여 조례상 안전규정보다 많은 손님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붕괴구간 21㎡에는 30~40명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서구가 일반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정작 조례상 안전규정 준수 여부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에는 클럽 2층 강화유리 바닥이 파손돼 손님 1명이 추락해 다치는 안전사고가 있어 업주가 입건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행정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구는 지난해 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이번 사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클럽이 변칙 영업으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

구가 오히려 '춤 허용' 조례를 제정. 이를 합법화시켜줬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받았다. 식품안전법 상 '일반음식점'은 주류·음식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장 내에서 춤출 수 없다.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려면 '유흥주점'으

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개업 당시부터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왔다. 서구는 2016년 3월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같은해 6월 과징금 6360만원을 부과했다.

서구는 이후 과징금 처분 한달여 만인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클럽도 조례 시행 일주일 뒤 곧바로 '춤 허용 지정업소' 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일각에서는 '변칙적인 유사 클럽영업'을 일삼은 몇몇 사업자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맞춤형 조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부칙에는 기존 허가 영업장은 면적 제한 규정에서 특례조항이 있다. 식품 위생·시설 안전 등 관련 규정과 과세 부담이 달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서구 관계자는 "위생·시설 안전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면서 "조례제정 과정은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법적 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은홍 기자



아베규탄 촛불 문화제 27일 오후 서울 중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침략 중단, 평화방해 규탄, 친일적책 청산, 헌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토부, 각 지자체에 불법증축 구조물 긴급 점검 지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와 관련 전국 지자체에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국과수의 현장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

과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지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은 보다 강화해 정기점검 등에서 불법증축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 및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AD카드 빌려 경기장 들어가려던 군인들 적발

현역 군인들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입이 가능한 카드(AD카드)를 빌려 경기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28일 육군 현역 병사 2명을 사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조사한 뒤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지난 27일 오후 7시18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동료 병사에게 빌린 AD카드를 이용해 경기장을 관망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구 결승전을 보고 싶어 다른 병사의 AD카드를 빌렸으며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이 군인임에 따라 신병을 헌병대에 넘겼다.

클럽서 성추행 수영대회 외국 선수 출국정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한 외국 남자선수가 긴급 출국정지 조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경영 선수 A(22) 씨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과 검찰 지휘를 받아 이 같이 조치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K 클럽에서 댄스 공연 중이던 종업원 B(18) 양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럽 직원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양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 출전했으며,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인 경위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기로 했다.

동거녀·지인 흉기로 찌른 베트남 남성 검거

동거녀와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에 익산시 영동동 한 아파트와 동산동 한 주택에서 자신과 같은 국적의 동거녀 B(44) 씨와 지인 C(55)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7일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2시간여 만에 범행 현장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 해안가서 2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캠프장에서 남쪽으로 약 30m 떨어진 갯바위에 여성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시신은 노란색 티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흰색 신발을 착용한 상태였다.

대구 지하철서 소화기 뿌린 70대 입건

대구에서 지하철 내에 소화기 내용물을 뿌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안에서 소화기 내용물을 분사한 혐의(업무방해)로 A(77)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구도사철도 1호선 신기역에 들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만지다 내용물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빛은 소동으로 승객 50여 명이 대피했으며 열차 운행 역시 약 3분간 지연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